

201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국어B형 정답

1	㉓	2	㉔	3	㉕	4	㉖	5	㉗
6	㉘	7	㉙	8	㉚	9	㉛	10	㉜
11	㉝	12	㉞	13	㉟	14	㊱	15	㊲
16	㊳	17	㊴	18	㊵	19	㊶	20	㊷
21	㊸	22	㊹	23	㊺	24	㊻	25	㊼
26	㊽	27	㊾	28	㊿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해설

1. [출제의도] 토론 절차에 따른 참여자의 입론 내용을 파악한다.

‘찬성 2’는 두 번째 입론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례를 근거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에 앞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한 바 없으므로, 여러 대안들 중 한식의 표준화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토론에서 하위 쟁점을 파악한다.

첫 번째 입론과 교차 조사의 과정에서 토론 참가자들은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고유한 맛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를 하위 쟁점으로 삼아 토론을 하였다. 또한 두 번째 입론과 교차 조사의 과정에서 토론 참가자들은 ‘한식의 표준화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가.’를 하위 쟁점으로 삼아 토론을 하였다.

3. [출제의도] 토론에 참여한 청중이 쓴 글을 평가한다.

㉓는 표준화된 조리법이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개인적 경험에 해당되므로, 이것이 ‘찬성 2’의 논지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출제의도] 발화의 특징을 파악한다.

A형 4번 참고

5. [출제의도] 인터뷰의 계획에 따라 인터뷰한 내용을 평가한다.

A형 5번 참고

6. [출제의도]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 및 형식을 파악한다.

(나)는 마지막 문단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의식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의 네 번째 문단에서 정부 당국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 해결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②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겪었던 부당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의 첫 번째 문단에 인사말과 자기소개가 있고 글 전체에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⑤ (나)의 두 번째 문단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해서 건의문의 초고를 보완한다.

[자료 1]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필요한 관계 법령이나 적절한 대처 방법을 잘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자료 2]는 부당한 대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관계 법령이나 적절한 대처 방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임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①, ②, ④ [자료 1]과 [자료 2]는 고용주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자료 1]과 [자료 2]는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이 직업의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초고를 고쳐 쓴다.

㉔의 앞 문장과 뒤 문장은 의미상 대등하게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㉔은 ‘그리고’나 ‘또한’으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풀이] ① ㉔의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앞 말과 띄어 쓰는 것이 옳다. ② ㉔은 전체 글의 요지와 관련성이 적고 통일성을 해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㉔에서 ‘저해되다’는 ‘방해가 되거나 못하게 해를 받다.’라는 뜻이므로 ‘권리’가 보장받지 못했을 때는 ‘침범당하여 해를 입다.’라는 뜻인 ‘침해당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④ ㉔은 피동 표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처벌해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9.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A형 9번 참고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추어 글을 쓴다.

A형 10번 참고

11. [출제의도] 접반침의 표준 발음에 대해 이해한다.

‘밝기[발끼]’는 ‘ㄹ’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가 아니라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인 ‘-기’와 결합하므로, 뒤엷것인 ‘ㄱ’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할 수 없다. 따라서 ㉔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밝다[박따]’는 ‘ㄹ’이 자음인 ‘ㄷ’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㉑에 해당하는 예이다. ② ‘밝게[발게]’는 ‘ㄹ’이 ‘밝-’이 용언의 어간 말음에 해당하고 ‘ㄱ’ 앞에서 [ㄴ]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㉒에 해당하는 예이다. ③ ‘밝혔다[발켄따]’는 ‘ㄹ’이 뒤 음절 첫소리인 ‘ㅎ’과 결합하여 ‘ㄱ’과 ‘ㅎ’을 합쳐서 [ㅋ]으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㉓에 해당하는 예이다. ⑤ ‘밝는다[방는다]’는 ‘ㄹ’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고 있으므로, ㉔에 해당하는 예이다.

12.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 이해한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이 ‘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본 모양인 ‘ㄴ’을 밝혀 적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원칙인 ㉔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ㄷ, ㅌ’이 구개음화되어 ‘ㅌ, ㅎ’으로 발음되더라도, 그 기본 형태를 밝혀 ‘ㄷ, ㅌ’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㉔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어간에 명사화 접미사 ‘-이’나 ‘-음’이 결합하여 된 단어라고 해도, 그 어간의 본뜻과 떨어진 것은 어간 형태소의 뜻이 유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을 필요가 없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㉑을 확인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어법에 어긋나거나 부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을 파악한다.

‘착한 너의 후배를 나한테 빨리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에는 불필요하게 중복된 의미가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㉔의 적절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㉔의 적절한 사례로는 ‘비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아침에 우산을 챙겼다.’ 등을 들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주어(‘내가 하고 싶은 말’)와 서술어(‘배려해서 행동하자’)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㉑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비단’은 부정하는 말 앞에서 ‘다

만’, ‘오직’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므로 ㉒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서술어(‘두었다’)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인 부사어(‘...에’)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이므로 ㉓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집’에 대한 서술어(‘신다’ 등)가 부적절하게 생략된 경우이므로 ㉔의 사례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사전을 통해 단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A형 14번 참고

15. [출제의도] 피동문에 대해 이해한다.

A형 15번 참고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어두의 ‘ㄴ’에 모음 ‘ㅣ’가 결합되었으나 ‘ㄴ’이 탈락하지 않고 있으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예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현대 국어(‘이르시되’)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오답풀이] ①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부터’)에 주격 조사가 ‘가’가 아니라 ‘ㅣ’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③ ‘부터’ 다음에 관형격 조사로 ‘의’가 아니라 ‘ㅅ’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④ 문장의 주어인 ‘야수’를 높이기 위해 어간에 선어말 어미 ‘-시-’를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⑤ 문장의 목적어인 ‘부터’를 높이기 위해 어간에 선어말 어미 ‘-습-’를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없는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17~20] (사회) 김환준,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

이 글은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 제시한 ‘소득-여가 선택 모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제약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17. [출제의도]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한다.

(나)에서는 ‘제한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라는 예산제약선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제약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예산제약선의 다양한 변화 양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18. [출제의도] 글의 개념과 원리를 시각 자료에 적용한다.

(라)에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동일한 노동 시간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가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여가 시간을 줄여 노동 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보기>의 그래프는 소득이 Y_1 에서 Y_2 로 높아짐에 따라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무차별곡선도 이동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무차별곡선의 이동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최적 조합이 a에서 b로 바뀌고 있는데, 무차별곡선 ㉑과 예산제약선 X_1Y_1 의 접점에서와 같은 기울기 값을 가지는 점(X_2 의 여가 시간을 선택함을 나타내는 점)이 무차별곡선 ㉒ 상에서 X_4 의 여가 시간을 선택함을 나타내는 점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X_4 에서 X_2 를 뺀 만큼 노동 시간을 줄여도 동일한 소득이 유지됨을 나타낸다. 이것은 단위 시간당 거둘 수 있는 소득이 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즉 X_4 에서 X_2 를 뺀 값은 소득효과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이 그래프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조합이 a에서 b로 바뀌

고 있으므로, X_4 에서 X_3 를 뺀 값만큼 여가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리는 양상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대체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X_4 에서 X_3 를 뺀 값은 대체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점 a에서 무차별곡선 ㉔의 접선은 예산제약선 X_1Y_1 과 같다. 무차별곡선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을 나타내고,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시간당 임금을 나타낸다. 따라서 점 a에서는 무차별곡선 ㉔의 접선의 기울기가 곧 예산제약선 X_1Y_1 의 기울기이므로 한계대체율과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게 된다. ②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효용이 높은 조합을 나타낸다. ㉔보다 ㉕가 원점에서 멀리 있으므로 점 a보다 b에서의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의 총합이 크다. ③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시간당 임금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차이는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⑤ 소득의 최대값이 Y_1 에서 Y_2 로 높아진 것은 소득과 관련 있는 제약 조건이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19. [출제의도] 글의 개념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에 의하면, A 씨는 여가를 소득보다 선호하지만 B 씨는 소득을 여가보다 선호하며, 이에 따라 무차별곡선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A 씨는 여가의 한계효용이 소득보다 큰 반면, B 씨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여가보다 커서 무차별곡선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커서 무차별곡선의 모양이 다른 것이다.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크면, 여가 1단위와 소득 2단위의 효용이 같을 수 있다. 한계대체율은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이므로, 앞서 제시한 예의 한계대체율은 2이다. 반대로 여가의 한계효용보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크면, 여가 2단위와 소득 1단위의 효용이 같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계대체율은 1/2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A 씨의 무차별곡선과 B 씨의 무차별곡선 상에서 동일하게 소득 3단위와 여가 1단위를 선택한 조합을 나타내는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A 씨의 무차별곡선이 급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A 씨는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커서 한계대체율이 크고, 그에 따라 A 씨의 무차별곡선이 B 씨보다 급한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20.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㉔의 ‘쓰다’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시간이나 돈을 들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㉕이다.

[오답풀이] ① ‘도리에 맞는 바른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② ‘몸의 일부분을 제대로 놀리거나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③ ‘사람을 어떤 일정한 직위나 자리에 임명하여 일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⑤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일정 기간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21~24] (인문) 최인철, 「사후 과잉 확산 편향과 인과 추론」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개념과 그 발생 원인을 서술한 글이다.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은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라는 착각을 유발하며, 그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으로 나누어진다.

21.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이란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의 결

과가 그렇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하여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개념을 정의한 다음, 그 발생 원인을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동기적 설명에서는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발생 원인을 ‘통제감’과 자기 과시 동기와 관련짓고 있으며, 인지적 설명에서는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한다고 보는 ‘잠입적 결정론’과 관련짓고 있다.

22.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를 확인한다.

이 글에서는 사후 과잉 확산 편향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을 뿐, 그 밖의 편향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23. [출제의도] 사후 과잉 확산 편향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파악한다.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사후 설명이 용이할수록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오답풀이] ②, ④ 5문단의 설명에 의하면,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을 감소시키기는 매우 어려우며,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편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③ 3문단의 설명에 의하면, 인지적 설명은 ‘잠입적 결정론’으로 알려져 있다. ⑤ 1문단의 설명에 의하면, 우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결과가 알려지고 난 후에는 대개 필연적인 사건들로 해석되는 것도 이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결과이다.

24. [출제의도]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을 실제 사례와 연관지어 이해한다.

회담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한 사람들이 통제감이 약해서 실제 일어난 결과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동기적 설명에 어긋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서 동기적 설명은 통제감에 대한 추구, 자기 과시의 동기를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④ 3문단에서 인지적 설명은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한다고 본다. 즉, 결과를 알고 나면 결과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새로운 표상에 통합된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표상이 선행 사건과 가능한 결과들에 대한 인과 관계 모형을 변화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이란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5~26] (과학) 박수인 외, 「생동하는 지구」

변성 작용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온도와 압력을 중심으로 변성 작용과 변성암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암석에 온도와 압력이 가해지면 변성 작용이 일어나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에 많은 변화가 생겨 결국 변성암을 형성하게 된다. 변성 작용은 온도의 높이와 압력의 크기에 따라 크게 저변성 작용과 고변성 작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변성 작용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변성암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25.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한다.

광물들은 차등 응력이 가해지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배열된다고 했으므로, 광물들이 차등 응력이 가해지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암석이 가열되면 광물들 중 일부는 재결정화되고 또 다른 광물들은 서로 반응하여 새로운 광물들을 생성하게 된다고 했다. ② 변성암은 고체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③ 섭입이나 대륙

충돌 등의 지각 운동 등에 의해 암석이 지구 내부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 ④ 균일 응력은 차등 응력과 달리 모든 방향에서 힘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압력이라고 했다.

26.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주어진 자료에 적용한다.

저변성 작용을 받은 암석은 매우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 형성된 광물 입자들은 현미경을 사용해야 관찰할 수 있다. 반면에 고변성 작용을 받게 되면 입자들이 커져서 각 광물 입자들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저변성 작용을 받아 형성된 점판암의 조직은 고변성 작용을 받아 형성된 편마암의 조직보다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이 어렵다.

[오답풀이] ① 암석이 변성 작용을 받게 되면 암석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에 변화가 생겨 재결정화되거나 새로운 광물이 생기게 된다고 했다. ② 석영은 퇴적암인 셰일과 변성암인 편마암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광물이므로 석영의 존재 여부만으로는 두 암석을 구별하기 어렵다. ③ 변성암에는 지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했으므로, 셰일이 편암이나 편마암이 되는 과정 중 지각에서 일어난 일들도 암석에 흔적으로 남아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점판암은 저변성 작용에 의해 형성된 암석이고 편암은 고변성 작용을 받아 형성된 암석이므로, 편암이 점판암보다 더 높은 온도와 더 큰 압력을 받아 형성된 암석이라고 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A형 27번 참고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A형 28번 참고

2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A형 29번 참고

30.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A형 30번 참고

[31~33] (고전소설) 작자미상, 「운영전」

이 작품은 궁녀 운영과 김 진사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몽유록 형식의 애정 소설로, 몽유자인 유영에 대한 외부 이야기와 운영과 김 진사에 대한 내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고전소설로서는 드물게 비극적인 결말을 보이는 이 작품은 ‘수성궁’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운영이 자결한 후 김 진사는 ‘특’에게 운영을 위한 불공을 부탁했으나 특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자 부처님에게 특의 징벌을 기원한다. 이로 인해 특이 우물에 빠져 죽고, 김 진사는 세상에 뜻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김 진사가 운영의 재생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32.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이 글에서 몽유자인 유영이 운영과 김 진사를 만난 것은 지상계이다. 운영과 김 진사가 옥황상제의 용사로 천상계에 복귀한 후에도 때때로 회오리 바람 수레를 타고 속세로 내려오는데, 전생의 인연이 있어 유영이 두 사람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오답풀이] ③ 이 글의 앞부분에 김 진사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④ 운영과 김 진사가 내부 이야기에서 한을 품고 죽는 것과 유영이 외부 이야기에서 망연자실하다가 침식을 폐하고 자취를 감추는 결말은 이 작품의 비극적 성격을 나타낸

다. ⑤ 수성궁이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상황을 보고 윤영과 김 진사는 슬퍼하다가 시를 지어 슬픔과 무상감을 부각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A]에서 김 진사는 유영에게 자신과 윤영이 쓴 글을 영원히 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김 진사가 보답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34~37] (고전 시가 복합) 정극인, 「상춘곡」/채제공, 「와룡폭포기」

(가) (고전시가) 정극인, 「상춘곡」

이 작품은 작가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태인의 자연 속에 묻혀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한 가사이다. 봄의 경치를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는데, 안분지족하는 여유 있는 정신세계가 나타난다.

(나) (고전수필) 채제공, 「와룡폭포기」

이 작품은 웅장하게 떨어지는 폭포 주위에 은거하며 살아가는 작가의 생활을 보여 주고 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세속에서 벗어나 천상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깨달음이 잘 나타나 있다.

34.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도화행화, 녹양방초, 도화’ 등 봄이라는 계절감을 부각하는 소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와룡폭포의 모습, 물줄기, 연못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㉔는 폭포의 거센 물줄기로 인해 사라진 정자의 옛터를 언급하는 내용으로,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는 나타나지 않는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가)의 ‘저 밭’은 화자가 ‘무릉’처럼 여긴 곳으로 탐승을 위한 거점 공간이 아니다. (나)의 ‘연못’도 작가가 노닐며 즐기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므로, 이 역시 탐승을 위한 거점 공간이 아니다.

37. [출제의도]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가의 태도를 파악한다.

<보기>로 볼 때 (나)의 작가는 벼슬에서 물러난 후 명덕동에 은거하며 신선의 삶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은 작가가 은거지의 자연 속에서 신선의 삶을 동경하다가 느끼게 된 정신적 경지(천상의 즐거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작가가 무아지경의 만족감을 느끼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38~40] (현대시) (가) 서정주, 「추천사」/(나) 복효근, 「느티나무로부터」

(가) 서정주, 「추천사」

춘향이 그네를 타는 행위를 통해 삶의 고뇌로부터 벗어나 이상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 준다.

(나) 복효근, 「느티나무로부터」

느티나무를 통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삶의 고통이나 상처가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자를 긍정하는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38.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에서 시적 화자인 춘향이가 시적 청자인 향단이에게 그넫줄을 밀어 달라는 말을 건네고 있고 (나)에서 시적 화자는 느티나무를 ‘너’라고 지칭하며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야’라고 묻는 말을 건네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

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옮김에 따라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39. [출제의도] 관련 자료를 통해, 시를 낭송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점을 이해한다.

<보기>는 호흡의 조절과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와 관련지어 시를 낭송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각 연이나 시행마다 일정한 시간을 배분한다면, 행의 길이가 길수록, 한 연에 속한 행의 수가 많을수록 빠른 속도로 읽어낼 수 있다. 5연은 행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는데, 이때, <보기>에 따르면 점차 느려지는 속도로 낭송할 수 있다. 또한 5연에서 화자는 4연의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는 인식 이후에도 계속 그네를 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때 나타나는 정서와 관련짓는다면 체념적 어조로 5연을 낭송할 수 없다.

40. [출제의도] 관련 자료를 시에 적용하여 구체적 의미를 이해한다.

[A]에서 ‘뿌리’의 식물적 이미지는 ‘발등’, ‘발가락’ 등의 인간적 이미지로 치환되고 있다. [B]에서 화자는 나무와 자신이 먼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에 동질감을 느끼며 나무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C]에서 화자는 가지의 속살이 썩어 있는 곳에서 풀이 꽃을 피우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D]에서 화자는 [C]를 바탕으로,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으로 이해될 수 있는 고통이 ‘자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고통과 치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 [E]에서 화자는 모기를 잡지 않고 신발 끈을 매는 행위를 통해 자기를 긍정하고 타자를 포용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자연에 대한 경외감은 자연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을 뜻하므로 이 시의 주제 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A형 41번 참고

42. [출제의도] 외적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A형 42번 참고

43. [출제의도] 인물의 역할을 파악한다.

A형 43번 참고

44. [출제의도] 문맥의 흐름을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한다.

A형 44번 참고

45. [출제의도] 사건 순서를 재배열하여 서사 전개를 이해한다.

A형 45번 참고